

송사 기우만 선생 '송사집' 한글로 출간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호남 항일투쟁 정신적 지도자·학자 기우만 선생 문집 번역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한말의 의병장이자 호남의 대표적인 학자인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1846~1916) 선생의 문집인 '송사집(松沙集)'을 한글로 번역해 출간한다고 밝혔다.

'송사집'은 기우만의 문인인 양희갑(梁希甲)의 주도로 1931년에 간행된 책이다. 연구소는 1931년에 간행된 초간본을 저본으로 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1차 번역해 11권을 출간했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에 걸쳐 나머지 7권을 출간해 총 18권의 책으로 완간할 예정이다.

기우만 선생은 그의 할아버지 노사 기정진의 학맥을 계승한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학자이며, 항일투쟁의 중심적 인물이다.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한 2021년 1월의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1896년 2월, 단발령의 철폐, 일본세력의 축출, 개화정책의 반대 등을 내세우며 장성향 교에서 호남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다. 장성, 나주에서 기반을 다진 기우만은 광주에서 대규모 의병 진영을 결집시켜 서울로 북상할 계획을 세웠으나 국왕이 해산조치를 내리자 1896년 봄을 전후해 해산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한말의 의병장이자 호남의 대표적인 학자인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1846~1916) 선생의 문집인 '송사집(松沙集)'을 한글로 번역해 출간한다.

연구소는 '송사집'의 번역이 호남 항일투쟁의 정신적 지도자인 기우만 선생에 대한 연구에 기여하고 당시 영남 유림의 네트워크, 사상사, 사회사 등 여러 분야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지역의 역사문화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바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은성 기자

'부안군 마실영화관' 6일 재개관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 준수

부안군 마실영화관이 오랜 휴식을 끝내고 오는 6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코로나19로 휴관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운영이 일선여 가까이 중단됐던 마실영화관을 주식회사 댁스코가 관리를 맡아 운영한다. 새롭게 선정된 주식회사

댁스코와 작년 12월에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재개관한다.

재개관을 기념해 2월 4일부터 5일까지 무료 상영회를 계획해 살아있다라는 11시 30분에, 강철비2는 12시부터 각각 4회 상영을 하며, 선착순으로 입장하게 된다. 2월 6일부터는 유료상영으로 상영작은 윌트디즈니의 애니메이션영

화 '소울'과 문소리, 김선영, 장윤주 주연의 '세지매'이며, 관람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 영화 6,000원, 입체영화 8,000원이다.

관객은 발열체크,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띄어앉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관객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오래기간의 휴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개관을 기다려준 군민들에게 감사히이며 재개관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켜 청정향 부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아끼지 말자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찾아가는 예술극장' 참여 단체 모집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북 13개 시·군(전주시 제외)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예술극장'의 수혜기관을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문화회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기관으로, 정치, 종교, 상업적인 목적의 단체나 신청 단체의 사인과 경조사사의 일환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접수는 전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sari.wow@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22일 선정 기관에 개별 공지하며,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다. /뉴시스

국립민속국악원, 공연평가모니터링단 모집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해 18일까지 신청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공연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연평가모니터링단 25명을 모집한다.

자격은 전통 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국립민속국악원 공연발전에 기여할 의지가 있는 만 15세 이상인 자로, 다양한 연령, 성별, 관심 분야(전공)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http://namwon.guguk.go.kr)에

서 확인된다.

선정된 모니터링단은 2021년 3월~7월로 예정된 국립민속국악원공연 3~5회를 관람하고 공연평가모니터링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공연 의견서 제출 완료시 문화상품권을 증정하고, 향후 모니터링단 의견은 국립민속국악원 공연제작에 반영된다.

왕기석 원장은 "이번 공연평가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공연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연 만족도 개선 및 공연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내장산국립공원



구절초 테마공원

정읍 내장산국립공원·구절초 테마공원 '한국관광 100선' 선정

정읍시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국립공원과 육정호 구절초 지방 정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전북 6곳 중에서 정읍시가 유일하게 2곳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산 안에 숨겨진 것들이 무궁무진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내장산은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워 옛날부터 조선 8경의 하나로 꼽혔다.

내장산국립공원의 가을 단풍은 그 명성만큼 어느 것보다 압도적이지만 봄과 여름, 겨울 등 사계절 모두가 아름다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한국관광 100선에 4번째 선정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굳건한 기상을 자랑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은 육정호 상류의 소나무 동산에 가을 야생화인 구절초로 조성한 공원이다.

술산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우 투어 컨셉의 자연 친화적인 지방 정원으로 전국적인 출사 명소, 여행명소로 유명하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대표 관광지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내장산국립공원과 구절초 공원은 앞으로 2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관광지로서 전 세계와 전국의 관광객네스, 여행관광정보 홈페이지에 홍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 상세내용을 제공하며, 영어, 일어, 중국 등으로 번역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우수관광지로 소개된다.

유진섭 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에서 두 곳이 선정된 것은 정읍시의 큰 자랑"이라며 "코로나 블루로 지친 국민들이 우리 고장을 방문해 정읍의 향기를 느끼며 카타란 힐링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7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2021년 2월 16일(화)~17일(수)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 ▶ 주최 - 전주매일 신문
- ▶ 주관 - 전라북도스키협회
- ▶ 후원 - 전라북도, 무주군, 덕유산리조트
- ▶ 대회 신청 문의 - 063)288-9700 (전주매일 본사)

**이 행사는 전라북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